베푸는 인생,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락

— 연길시로보복장유한회사 당지부 서기이며 리사장인 황승호의 이야기

연길시 장백산로에 자리잡은 사계절양광아빠트단지 3호 아빠트의 16층 10호실은 140여평방메터 되는 아늑한 가정식 공간이다. 이곳은 연변의 문인들이 부담없이 차 한잔 나누면서 문학을 담론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전속 아지트 같은 곳이다.

문인들마다 집 열쇠를 챙기고 제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활동 공간인데 이 공간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연길시로보복장유한회사 당지부 서기이며 리사장인 황승호(75세)이다.

그는 다년간 연변시인협회 등 여러 문화단체들에 행사 자금을 후원하여 문인들이 각종 문학예술행사를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물심량면으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는데 지금까지 각종 문학행사들에 근 20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후원하였다.

이곳에는 연변시인협회, 연변아동문학협회,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 연변시랑송협회 등 다양한 협회 회원들의 발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응준, 리상각, 림원춘, 한석윤, 김기형 등 이미 작고한 문인들의 발자취도 남아있는 력사와 이야기가 깃들어있는 곳이기도 하다.

▲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즐겁다는 황승호씨

연변의 유명한 작사가 허동철선생은 성공한 기업인인 황승호씨는 문인들과 어울려 만년을 즐겁게 보내면서 다년간 지속적으로 물심량면 우리 문화의 발전을 위해 념려하고 힘써주는 그 마음과 행실이 무엇보다 귀중하고 또 갸륵하다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함께하는 세월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삶의 락이지요." 기자를 만나 황승호씨가 첫마디로 건넨 솔직한 고백이였다.

황승호씨는 어찌 보면 연변의 복장업계에서 성공한 기업가이다. 그러나 성공한 기업인이기에 앞서 그는 50년이 넘는 당년한을 가진 로공산당원이고 8년간이나 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끈질긴 군인정신이 돋보이는 퇴역군인이다.

고향이 화룡시 서성진 북고성촌인 황승호씨는 1968년 2월에 참군하여 8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1976년 3월에 퇴역하였다. 참군한지 2년도 안되는 1970년 5월에 영광스럽게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그는 지금까지 이미 당년한이 55년에 달해'영광스러운 당생활 50년' 영예메달도 탔다.

황승호씨는 군에서 퇴역한 후 연변공로기계공장과 연길시아동복장공장, 연길시로보복장공장 등 기업들에서 기계대 대장, 공회주석, 당지부 부서기, 공장장, 당지부 서기 등 요직들을 력임하면서 우수한 기업인으로 성장했다. 특히 그는 기업 기제 전환의 동풍을 빌어 집체기업이던 로보복장공장을 국유기업으로 전환해 기업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난방비 등 여러 면에서 종업원들의 복리와 대우를 향상시켜 환영을 받았다. 후에는 또 경기가 어려운 기업을 대담히 도맡고 다년간의 끈질긴 노력과 수완으로 기업을 우수한 사영기업으로 탈바꿈시키였다.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근 18년 동안 황승호씨는 함께 생사고락을 나눈 90여명의 종업원들을 잊지 않고 여러 면에서 그들의 생활을 관심하고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기제가 바뀐 후에도 각종 복리 대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종업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 1976년 3월 부대에서 퇴역할 때 남긴 기념사진(앞줄 중간 황승호씨)

현재 그가 운영하고 있는 연길로보복장유한회사당지부에는 31명의 당원들이 있는데 종업원들이 병환에 있거나 명절, 경조사 때면 위문품과 위문금을 잊지 않고 전달하면서 훈훈한 직장 동료의 정과 따뜻한 사랑을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많은 종업원들은 재직에 있을 때나 퇴직한 후에도 항상 "우리네 황공장장이 최고지요."라고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내든다.

현재 황승호씨는 연길시로보복장공장 리사장과 당지부 서기 직책외에도 연변복장업종협회 회장, 연변시인협회 고문, 35퇀 전우회 고문 등 다양한 사회직책도 가지고 있다.

해마다 '8.1'건군절이 다가오면 그는 한전호 속에서 싸우던 전우들을 요청하여 퇴역군인 건군절 기념행사도 조직한다. 최고로 80명이나 되는 퇴역군인들이 모인 건군절 기념행사를 조직한 적도 있다. 그동안 황승호씨가 건군절 기념행사에 지원한 사비도 8만원이 넘는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나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남을 돕느라면 자연히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렇게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서로 도움주고 또 도움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인생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는 자신이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는 베푸는 삶의 신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의 군인생활 8년은 그에게 끈질긴 의지와 강인한 성격을 양성해주었다. 그는 자신은 군인성격이라면서 특히 '끈질기다'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했다. 하고저 하는 것은 꼭 해내고야 마는 견인력과 끝을 보고야 마는 정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무슨 일이나 '고추장 맛보기'로 이것저것 가리고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은 달나라까지 올라가는 세월인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고 하면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군 한다.

"무릇 정확하고 정의적인 것이면 꼭 해낼 수 있습니다. 드팀없이 밀고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다년간의 사업 성공과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신조입니다."

70대 중반의 문턱에 올라선 지금도 황승호씨는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젊은이들 못지 않게 척척 처리하는 분주한 로익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다가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고 또 열심히 실천해가고 있는 삶의 락이고 여생의 꿈입니다." 황승호씨는 이 말을 입버릇처럼 외우군 한다.

/ 안상근기자

▲ 황승호씨의 후원하에 펼쳐졌던 제1차 '시향만리' 문학상 시상식

길림성음악가협회 제8차 대표대회 소집

정예 주석으로 당선

7월 29일 오후, 길림성음악가협회 제8차 대표대회가 장춘에서 소집되였다. 성문련, 성당위 선전부 간부인재처 관련 책임자와 전성에서 온 165명의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분발분진하고 꿈을 따라 전진－길림성 음악사업의 새로운 시대 악장을 힘써 엮어나가자〉는 제목으로 된 사업보고를 심의, 통과하고 제7차 대표대회이래 이룩한 사업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회고, 총화하였으며 향후 5년간의 사업에 대해 전망했다. 회의에서는 〈길림성음악가협회규약〉을 개정하고 〈길림성음악가협회 분지기구 관리조례〉를 심의, 통과했으며 길림성음악가협회 제8기 주석단을 선출하였는데 정예(郑艺)가 주석으로 당선되고 마수화, 왕월영, 석동송, 박은화, 권휘, 류흔, 류영, 손동동, 주검, 방충해, 원립평, 뢰뢰가 부주석으로 당선되였으며 마수화를 비서장으로 초빙하였다.

정예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습근평 문화사상의 관철을 긴밀히 둘러싸고 20차 당대회 및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의 문화 건설에 관한 전략적 포치를 둘러싸고 새시대, 새 로정에서의 선전사상문화사업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령혼을 주조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널리 실천하고 음악예술의 모든 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새로운 시대에 분발하는 주류사상여론을 공고히 하고 장대시키는 데 길림성음악가협회의 힘을 이바지해야 한다.

/ 길림일보

2024 중국청소년축구리그 U13 연변경기구 경기 룡정서 개막

7월 30일, 국가 교육부, 체육총국에서 지도하고 중국축구협회 주최, 연변조선족자치주체육국, 연변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 제3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 남자 초급중학교 U13 년령대 연변경기구 경기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개최되였다. 연변을 대표하여 경기에 참가한 연길체육학교 U13 팀은 첫 경기에서 6대 1로 륙안체육학교 U13 팀에 대승을 거두었다.

알아본 데 따르면 2024년 제3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 남자 초급중학교 U13 년령대조는 선수 및 팀에 대한 참가 제한이 없으며 구락부 청소년팀, 사회청소년훈련기구, 체육학교 대표팀, 학교대 표팀 등이 모두 참가할 수 있다.

▲ 연길체육학교 U13 팀 대 륙안체육학교 U13 팀 경기 장면 / 리군광

이번 남자 U13 대회에는 총 72개 팀이 출전했다. 연변경기구 경기에 참가한 팀들로는 해남중해, 장하해화초급중학교, 산동태산, 개봉 33중, 상해신화, 의춘 9중택지, 중경 1중이중언어, 연길체육학교, 사천우회인덕, 청도성양추풍, 광주양성축구발전유한회사, 륙안체육학교 등 12개 팀의 258명 선수들이다. 연변경기구 경기는 2개 조로 나뉘여 5차전으로 진행되며 조별 경기 성적에 따라 각 조의 1, 2위끼리 교차순위 결정전을 치른다. 승자는 전국 1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고 패자는 13강－24강 랭킹전에 진출한다.

이번 연변경기구 경기는 8월 9일까지 열리게 된다.

/ 김파기자

연길 '로전사의 집' 북경과학기술대학 '제2교실수업실천기지'로

▲ 대학생들이 6명의 로전사들에게 북경과학기술대학 마크를 달아드리고 있다.

지난해 여름방학부터 북경과학기술대학 자원공정학부의 대학생들이 연변에 와 사회실천을 펼치고 있다.

'홍색정신을 고양하여 청춘의 힘을 기여하자'를 주제로 북경과학기술대학의 10명 대학생들이 올해도 연길 '로전사의 집'을 중심으로 로혁명근거지의 불멸의 업적들을 수집하고 다양한 형식의 홍보물도 제작하면서 '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기념비'인 연변의 실정을 널리 알리는 체험활동을 펼쳤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두주일간의 실천 행사에서 로전사와 렬사유가족을 찾아 그들의 생활형편을 료해하고 목숨을 내걸고 적들과 싸우며 보가위국의 위훈을 떨치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경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8.1'건군절을 맞으며 대학생들은 '로전사의 집'에서 매일 펼쳐지고 있는 홍색이야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취재수첩을 채웠다. 또한 사회구역을 선정하여 자기들이 체험한 홍색이야기 강연도 펼치고 환경사랑 행사에도 참가했다.

7월 27일에는 '연길감옥 항일투쟁기념비'를 찾아가 헌화하고 항전의 나날에 영용하게 싸운 항일투사들의 업적과 슬기롭게 탈옥투쟁을 성공시킨 비장하고도 천추에 길이 빛날 력사들을 경청하면서 한차례 생동한 혁명교양을 받았다.

한편, 북경과학기술대학에서는 연길 '로전사의 집'을 '제2교실수업실천기지'로 선정하고 27일 오후에 연길 '로전사의 집' 봉사중심 리사장이며 당지부 서기인 서숙자와 북경과학기술대학공청단위원회 부서기인 왕종현이 기지 편액을 제막하였다.

대학생들은 그동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준 '특수교원'들인 6명의 로전사들에게 북경과학기술대학의 마크를 달아드리고 홍색유전자를 전승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숭고한 경의를 올렸다.

/ 박철원특약기자

연변 제35회 청소년 축구경기 룡정서 결속

7월 29일, 2024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제35회 청소년 축구경기(갑조)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막을 내렸다.

주내 11개 대표팀, 350명 선수가 이번 대회에 참가, 26일부터 3일간의 치렬한 경쟁 끝에 연변체육운동학교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하고 연변 1중 대표팀이 준우승을 따냈다.

중국축구개혁발전종체방안과 중국축구장기발전계획(2016년—2050년) 정신 관철 실시를 목적으로 펼쳐진 이번 대회는 주교육국, 주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연변축구협회, 연변교정축구협회에서 주관했다.

/ 중국조선족소년보